

<서평>

## *ZeBible*

(Villiers-le-Bel: Société Biblique Française - Bibli'O, 2011)

김선종\*

### 1. 서두

책을 많이 쓰고 공부만 하는 일은 피곤하다(전 12:12). 그러나 그러한 피곤한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언가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의 본질 때문이다. 성경 이외에 주석과 해설 성경이 끊임없이 출판되는 것도 이전의 주석과 해설 성경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비롯한다. 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좋은 해설 성경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를 받거나, 자신이 이미 선택한 해설 성경을 평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당혹스럽다. 해설 성경은 저자, 본문, 독자가 서로 영향을 끼치는 주석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한 어느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한 가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성경을 읽는 독자의 상황, 신학과 신앙의 성향에 따라 해설 성경의 가치는 다르게 평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해설 성경은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대한성서공회는 이미 2001년도에 「성경원문연구」 9호를 할애하여 우리 말 해설 성경의 문제와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다. 주된 문제점은 저자나 편집자, 또는 감수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단지 이름만 빌리는 비윤리적인 문제이다. 주요 과제는 특정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설 성경도 필요하고, 기독교인뿐 아니라 타종교인도 고려하는 여러 차원의 해설 성경이 필요하며,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참여하는 해설 성경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주석이 아닌 해설 성경은 주로 일반 신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쉽게 기술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sup>1)</sup>

---

\* Université de Strasbourg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호남신학대학교 구약학 조교수. sjhesed@hanmail.net.

프랑스의 비블리오 출판사(Bibli'O)는 620,000유로를 투자하고<sup>2)</sup> 7년 동안 준비하여 귀감이 될 만한 해설 성경을 2011년에 출판하였다. 그 성경이 바로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ZeBible(제 비블)인데, 이 글에서는 이 성경의 특징과 짜임새, 또한 장단점을 주로 소개하고 우리말 해설 성경의 구성과 제작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적용할 만한 사항을 간단하게 제시하도록 하겠다.

## 2. ZeBible의 특징과 짜임새

### 2.1. 특징

ZeBible은 성경의 겉모습과 내용에서 매우 파격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먼저 ZeBible의 외형의 특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는 이 성경이 누구에게나 눈에 떨 만큼 두드러지는 겉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관찰력이 뛰어난 독자들은 이미 이러한 겉모습에서 그 내용의 특성과 짜임새조차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ZeBible의 편집자들이 외형적인 모습에서부터 아래와 같은 파격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2.1.1. 겉모습의 특징: 이름, 디자인, 편집, 의사 소통

ZeBible을 처음 접하는 독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디자인, 편집, 독자와의 만남의 방식에서 매우 파격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ZeBible이라는 성경의 이름이 매우 특징적이다. 사실 ‘ze’라는 낱말은 프랑스어 사전에서 발견할 수 없는데, 이는 프랑스 젊은이들이 프랑스어의 정관사 le/la(영어의 ‘the’)를 우스꽝스럽게 사용하는 일상어이다. ZeBible은 성경의 어느 곳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성경의 이름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파격적인 제목을 선택했는데, 과연 이러한 성경의 이름이 적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ZeBible이라는 표현이 자국어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자국어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영어식 프랑스어(franglais)로 풍겨지고, 성경의 경전성을

1) 해설 성경이 주석과 달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왕대일, “우리가 만드는 해설 성서 - 무엇일, 왜, 어떻게: 우리말 해설 성서의 작성과 편집을 위한 제안”, 『성경원문연구』 9 (2001), 112-114를 참조하라.

2) B. Sauvaget et S. Richert, “Une bible «jeune»”, *Réforme* 3417 (2011), 9.

세속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이 성경의 편집자들이 결국 *ZeBible*이라는 제목을 정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성경을 읽지 않는 젊은층, 특별히 15-25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설 성경을 기획하여 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름을 선택한 점이다. 2010년 프랑스의 시장 연구 조사 기관(IPSOS)은 프랑스 청소년 가운데 98%는 성경을 읽지 않고, 29%만이 성경책을 한 권 가지고 있으며, 32%는 성경이 단지 문학에 불과하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sup>3)</sup> *ZeBible*은 이러한 신앙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청소년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성경을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둘째로 단지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성경을 쉽고 가볍게 접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이것은 프랑스성서공회(Alliance biblique française)가 성경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에도 관련된 것으로, 성경은 단지 신앙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바라볼 때 비신앙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태도가 바로 그러하다.<sup>4)</sup> 성경은 기독교 교과들 사이, 더 나아가 여러 종교가 행하는 대결의 장이 아니라 만남의 장이라는 중요한 인식을 *ZeBible*의 편집진은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호소력을 가지고 *ZeBible*을 주로 주관한 개인교 계열의 프랑스성서공회는 프랑스 문화부와 가톨릭교회의 후원을 얻어내기도 하였다.<sup>5)</sup>

*ZeBible*의 겉모습에서 두드러지는 둘째 특징은 독특한 디자인이다. 회색 표지 위에 있는 종이면에는 현대 문명을 나타내는 여러 만화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고, 성경의 옆면과 본문의 소재목은 모두 분홍색 계열의 색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점은 독자들에게 호감을 주어 성경 판매에도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성서공회가 성경 판매에만 도가 지나친 관심을 기울일 때 성경의 상업화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익만을 얻기 위해 성경을 지나치게 호화스



〈그림 1〉 *ZeBible*의 겉모습

3) <http://ZeBible.com>에서 ‘*ZeBible*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en savoir plus sur *ZeBible*) 항목.

4) 이러한 입장을 위해서는 프랑스성서공회의 홈페이지(<http://www.la-bible.net>)를 참조하라.

5) B. Sauvaget et S. Richert, “Une bible «jeune»”, 8-9.

럽게 만들었을 때, 성경이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고, 인쇄와 제본이 공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교재나 참고서에 해당하는 해설 성경이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는 점에 조심해야 한다.<sup>6)</sup> 그러나 ZeBible의 시장 거래(마케팅) 전략은 성경이 젊은이들과 비기독교인들에게 매혹적으로 다가가게 하여, 성경을 선물하거나 성경을 적극적으로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7)</sup>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일단 성경을 구입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겉모습의 셋째 특징은 해설 성경의 편집에서 찾을 수 있다. 대체적으로 해설 성경은 단락에 대한 설명과 구절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단락에 대한 설명은 본문 안에, 구절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난하주에 위치한다. 그런데 ZeBible은 이러한 일반적인 편집과 달리 특정 구절에 대해서는 설명조차 하지 않으며, 본문에 대한 설명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양 옆의 여백에 위치한다. 또한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성경』이나 『굿뉴스스터디 바이블』에 비교하여 그 해설의 양조차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적다. 또한 그 신학적 수준 역시 이들 성경에 비하여 쉬워 보인다. 그리고 모든 단락에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한 단락의 중심이 된다고 보거나 독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구절을 다시 한 번 특별히 큰 글자로 본문 가운데 만들어 둔 풍선 안에 빨간색으로 따로 적어 둔 점(창 1:31; 3:9의 예)도 ZeBible이 가지고 있는 외형의 특징이다. 이 모든 것이 젊은 층의 독자와 비

LUC / Chap. 23

Annotations on the page:

- 단락의 제목: Jésus est cloué sur la croix
- 병행문: «Tandis qu'ils emmenaient Jésus, ils rencontrent Simon, un homme de Cyrène, qui revenait des champs. Les soldats se saisissent de lui et le chargèrent de la croix pour qu'il la porte derrière Jésus.»
- 성경 본문: «Jésus se tourne vers elles et dit: «Femmes de Jérusalem, ne pleurez pas à mon sujet! Plusieurs pleurent pour vous et pour vos enfants! Mais le moment approche où l'on dira: «Heureuses celles qui ne peuvent pas avoir d'enfants, qui n'ont jamais aimé, au monde et qui n'en ont jamais allaité! » Alors les gens se mettent à dire aux moines: «Touchez sur nous!» et aux collines: «Cachez-vous!» Car si l'on traite ainsi le bois vert, qu'arrivera-t-il au bois sec? »
- 본문 해설의 제목: 23.34
- 본문 해설: Père, pardonne-leur, car ils ne savent pas ce qu'ils font.
- 주요 구절: 23.34

Annotations on the page:

- 성경 인물의 초상화: HERODE. UNE DYNASTIE DE ROIS JALOUX ET CRUELS
- '독서 도구'의 특수: Plusieurs personnages différents portent le nom d'Hérode dans le Nouveau Testament (voir p. 164), mais tous sont présentés comme des personnages sans scrupules.
- 인물 목록 참조: Son fils, Hérode Antipas, règne après lui sur la Galilée (Luc. 2:1). Il épouse sa femme pour épouser sa belle-sœur, Hérodiade. Il fait emprisonner puis mettre à mort Jean-Baptiste, qui demandait son salaire (Marc. 6:17-18). Plus tard, Jésus comparé devant Hérode. Celui-ci le méprise, tout comme Pilate». Ce jour-là Hérode et Pilate deviennent amis (Luc. 23:12).

<그림 2> 누가복음 23장 26-36절의 본문

구절을 다시 한 번 특별히 큰 글자로 본문 가운데 만들어 둔 풍선 안에 빨간색으로 따로 적어 둔 점(창 1:31; 3:9의 예)도 ZeBible이 가지고 있는 외형의 특징이다. 이 모든 것이 젊은 층의 독자와 비

6) 민영진,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 『성경원문연구』 9 (2001), 39. 참조, 왕대일, “우리가 만드는 해설 성서”, 109.

7) <http://ZeBible.com>에 연동된 성경 판매 인터넷 사이트 <http://www.editionsbiblio.fr>는 ZeBible의 가격을 32유로로 매기고 있고, 디자인과 품질에 비해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며, 성경이 출판된 지 한 달 만에 25,000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을 위한 접근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ZeBible*의 해설이 이들 해설 성경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듯이 본문에 대한 신학적 설명과 더불어 삶의 윤리적이거나 실천적인 문제에 대한 해설도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에스겔 16:35 이하의 해설에는 ‘위험한 놀이’(Jeux dangereux)라는 소제목 아래 ‘창녀’에 대한 설명을 곁들임으로써, 단지 에스겔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할 뿐 아니라, 흥미로운 제목을 통해서도 청소년들이 젊은 시절을 살아갈 때 성윤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유도한다.

### 2.1.2. 내용의 특징: 독자층, 집필진, 전자 성경

독자들은 *ZeBible*의 겉모습에서 이미 내용의 특징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깔끔한 디자인이 젊은층과 비기독교인의 호감을 갖도록 마련된 것은 결국 *ZeBible*은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이 성경은 기존의 해설 성경에 비하여 주로 신학적인 서술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의 문제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인다.

이처럼 해설 성경을 통하여 신앙인과 교회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기 위하여 *ZeBible*의 집필진도 전문 성서학자만이 아닌 초교파 교회의 목회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sup>8)</sup>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나온 일반 해설 성경과 달리 해설 성경의 저술이 성서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선 목회 현장에서 흔히 만나는 일상의 문제, 곧 정치, 경제, 윤리 문제 등과 씨름하는 목회자들의 고민의 반영이기도 한 점이다. 이는 이미 민영진과 왕대일과 김영봉도 우리말 해설 성서의 집필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한 사항으로<sup>9)</sup> *ZeBible*은 이러한 목회자들의 해설 성경 집필을 시도하였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것은 우리말 해설 성경 제작을 위하여 많은 도전을 준다. 프랑스어권 교회 목회자들은 청소년들의 신앙과 앞으로 펼쳐질 교회 현실에 대한 위기감에 반응하여 해설 성경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점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집필진이 초교파(개신교, 가톨릭,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와

8) *ZeBible*의 서문 8-9쪽을 따르면, 성경 해설 집필자는 알라그바다(N. Alagbada)를 비롯한 107명, 출판 위원은 오리악(N. Auriac)을 비롯하여 모두 21명에 이른다.

9) 민영진,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 38; 왕대일,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구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9 (2001), 54; 김영봉, “우리의 상황에서 나온 해설 성서가 필요하다: 스테디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성경원문연구』 9 (2001), 79.

프랑스 성공회)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은 이미 이들이 해설 성경 집필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교회의 일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성경은 다른 교파 사이의 경쟁, 교리 논쟁이나 서로 다른 종교의 전쟁터가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라는 중요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이미 2013년에 개혁신교회 교단과 루터교회 교단이 하나로 합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ZeBible은 젊은 독자층 또는 비기독교인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표지 디자인과 해설의 내용에 신경을 쓰는 것과 함께, 다매체(multimedia) 시대를 맞은 전세계 기독교가 맞은 위기 상황에서 현대 최첨단의 의사소통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



<그림 3> <http://ZeBible.com>의 초기 화면

다. 여러 인터넷 사이트의 동시적인 운영은 ZeBible이 인쇄된 성경만이 아니라, 웹 세계에서 온라인 성경의 기능을 동시에 활용할 것을 초대하고 있다. ZeBible의 공식 웹사이트인 <http://ZeBible.com>에는 여러 하부 창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이 성경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판매, 음악 자료, 영상 자료, 그림 자료 등 현재 16개의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ZeBible/photos\\_stream](https://www.facebook.com/ZeBible/photos_stream))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개의 창을 준비하고 있다.<sup>10)</sup> 더욱이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의 활용은 ZeBible에 참여한 교파들의 의견의 차이를 수렴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본래 이 성경의 인쇄본을 준비할 당시, 개신교와 가톨릭 성경을 따로 만들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인터넷 사이트를 준비

10) 이러한 온라인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예는 최근 미국의 영어권 교역자들에게 새롭게 다가선 New English Translation([www.netbible.com](http://www.netbible.com))과 독일의 청년층을 위해 낸 BasisBibel([www.basisbible.com](http://www.basisbible.com))과 견주어 볼 수 있다. 이들이 성경 본문을 온라인에 소개하고 많은 수의 각주와 하이퍼링크를 통한 해설과 동영상 자료를 담고 있는 것에 비하면, ZeBible의 자료는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위의 영어와 독일어 해설 성경에 대한 소개와 서평을 위해서는 김준현, “New English Translation Bible (Texas: Biblical Studies Press, 2005)”, 『성경원문연구』 34 (2014), 315-338과 유은걸, “BasisBibel: Neues Testament und Psalme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성경원문연구』 34 (2014), 302-314를 참고하라.

하면서 개신교 누리꾼과 가톨릭 누리꾼으로 구분하는 일이 몰상식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sup>11)</sup> 이러한 동기에서 *ZeBible*은 이 성경이 본문으로 삼은 『상용 불어 성서』(français courant)가 지니고 있는 외경을 포함시켰는데, 일부 목사와 소수 교단은 이러한 이유로 이 성경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 2.2. 짜임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ZeBible*의 특징이 깔끔한 디자인, 신학적이라기보다 현실의 삶에 대한 관심사, 청소년과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이 성경의 짜임새 역시 이러한 기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해설 성경이 서론, 성경 본문과 해설, 용어 해설로 이루어지고, 전체 서론과 각 책의 서두에서 주로 성경 개론을 소개한다면, *ZeBible*은 서론에서조차 과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성경은 성경 본문을 구약은 히브리 성경 타낙(Tanakh)의 구조에 따라 오경, 예언서, 성문서, 또한 외경으로 구분하고 있고, 신약은 복음서, 서신서 등의 구분 없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열한다. 그런데 *ZeBible*은 구약과 신약의 구조(오경, 예언서, 성문서, 복음서 등)에 대한 개론조차 없다. 각 책에 대한 소개도 길어야 한 쪽을 넘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간결하다. 각 책에 대한 소개는 ‘책을 읽는 이유’, ‘주요 인물’, ‘문학 양식’, ‘내용 요약’, ‘구조’, ‘저자’, ‘핵심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책에 따라 이 가운데 한두 가지 요소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ZeBible*은 다른 해설 성경의 일반적인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대신에 성경의 맨 처음과 마지막 단락을 ‘독서 방법 1’(outils de lecture 1)과 ‘독서 방법 2’(outils de lecture 2)라고 이름 지음으로써,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아예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독서의 방법 2’는 일종의 부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sup>12)</sup> 인명과 지명, 예수의 기적과 비유, 인텍스, 신약의 구약 인용 본문, 낱말 해설, 연대표, 지도를 담고 있어서 일반적인 해설 성경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 성경만의 독특성은 *ZeBible*의 서두에 위치한 ‘독서의 방법 1’에서 찾

11) B. Sauvaget et S. Richert, “Une bible «jeune»”, 8.

12) ‘독서방법 2’(139-173쪽)는 요한계시록 뒤에 위치하여 실제로 부록에 해당하는데, 그 쪽수는 창세기 앞에 위치하여 서론에 해당하는 ‘독서방법 1’(17-136쪽)에 곧바로 이은 쪽수를 사용한다.

아볼 수 있는데, 그 목차와 간략한 내용은 이 성경의 독특성을 보여준다.

성경과 나(La Bible et moi)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Comment lire la Bible?)

성경에 대한 대략적 검토(Survol de la Bible)

성경의 세계(Le monde de la Bible)

독서표(Programmes de lecture)

일련의 주제들(Parcours thématiques)

성경에서 피할 수 없는 낱말과 나오지 않는 낱말(Incontournables et introuvables de la Bible)

성경에서 도움 찾기(Trouver de l'aide dans la Bible)

먼저 ‘성경과 나’(17쪽)의 단락에서는 수천 년 전의 문서로서의 성경을 21 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한 쪽에 걸쳐서 짧게 다룬다. 성경은 인류가 남긴 기념물이며, 문화유산, 인간 삶의 거울이라고 말함으로써 청소년과 비종교인이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성을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은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탐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함으로써 종교 경전으로서의 성경의 가치를 언급한다.

둘째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18-21쪽)에서는 ‘관찰 - 이해 - 적용’의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을 것을 제안한다. 사실 이러한 순서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서 독자의 주의를 끄는 것은 적용의 차원을 개인, 이웃, 사회, 세상으로 넓혀 고찰할 것을 요구하고, 행동과 태도와 사고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읽었는가, 기도하도록 이끌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점이다. ZeBible은 단지 해설 성경을 개인의 목상을 위한 지침서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개인과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방식에서 ZeBible은 개인 차원의 독서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성경을 읽을 것을 강조한다. 이 성경은 이러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원론적으로 강조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ZeBible은 그룹 성경 읽기를 활성화시키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혼자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것’,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지 말 것’, ‘다른 누구의 의견도 무시하지 말 것’, ‘다른 사람이 꼼꼼이 생각할 때 생길 수 있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 것’ 등이 그 예이다. 곧 내가 읽은 성경의 진리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읽고 깨달은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함께 진리를 추구할 것을 요청한다.

셋째로 ‘성경에 대한 대략적 검토’(22-24쪽)에서는 구약은 오경, 예언서,



성문서, 외경의 순서로,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각 책에 대하여 짧게는 한 줄, 가장 길게는 네 줄로 설명함으로써, 청소년과 비기독교인들이 몇 문장으로 각 권의 책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간략하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 *ZeBible*은 창세기에 대하여 ‘세계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Récits des origines du monde et des ancêtres du peuple d’Israël)라고만 짧게 기술한다. 창세기부터 외경을 거쳐 요한계시록까지 단 세 쪽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실은 이 설명이 얼마나 간략한지 알아보기에 한다. 이러한 짧은 소개 또한 성경을 처음 대하는 독자층에게 한두 문장으로 성경의 각 권을 소개하여 성경 전체를 쉽고 빠르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 대신에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각 책의 서론 부분에서 다룬다.<sup>13)</sup>

넷째로 ‘성경의 세계’(25-44쪽)라는 항목에서는 비교적 여러 사항을 소개한다. 그것은 ‘계약 -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약속’, ‘역사, 지리, 사회적 문맥’, ‘정경 - 성경 목록’, ‘영감 - 누가 성경의 저자인가?’, ‘성경 언어: 히브리어, 아랍어, 그리스어’, ‘성경 본문의 전송: 용지, 복사, 필사본’, ‘성경 번역’, ‘문학 장르 - 의미를 존중하기 위하여’, ‘역사와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특징적인 것만 선별적으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정경’ 부분에서는 프랑스 국립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17-18세기의 오경 두루마리의 출애굽기 15:1-18의 해당 부분 사진과 신약의 크로스비-스웨덴 코덱스(Le codex Crosby-Scøhyen)를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ZeBible*과 가톨릭 성경, 또한 개신교 성경의 배열을 비교한다. ‘영감’의 단락에서는 *ZeBible*의 저자에 대한 기본 입장을 드러내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비록 이 성경이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유럽의 신학 전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ZeBible*의 주된 독자는 15-25세의 청소년과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성경 저자에 대한 문자주의를 배격하는 입장을 보인다. ‘성경 본문의 전송’ 단락에서는 문화사적 관점에서 비교적 수준 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단락에서는 구약만 담고 있는 사본이나 파피루스,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존하는 코덱스, 신약만 담고 있는 파피루스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성경의 구두 전송과 기록 전송을 설명한다.

다섯째로 ‘독서표’(45-64쪽)는 절기나 주제에 따라 성경을 읽도록 하는 독서 계획표에 해당한다. 이 단락은 ‘성서의 세계’ 안에 있는 다른 항목에 비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실제적으로

13)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3. 성경 각 책의 짜임과 본문 해설’에서 다룬다.

성경을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절기의 경우에는 성탄절을 기준으로 7일 동안에 위한 본문, 부활절을 중심으로 9일 간의 독서 등 5개의 독서 계획표를 담고 있고,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의미 있다’, ‘지혜의 가나다(abc)’, ‘사회 정의를 위하여’, ‘고독? 연대감!’ 등의 제목 아래 10개의 독서 계획표를 소개하며,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흔적 위에서’, ‘약속의 땅을 향한 길에서’ 등의 제목 아래에 특정한 성경 내용을 중심으로 한 10개의 독서 계획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독서표의 마지막에는 인간의 삶과 역사에 대한 99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성경의 순서에 따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인간은 단지 짐승에 불과한가?(창 1:1-2:4)’, ‘왜 둘이 살아야 하는가?(창 2:4-25)’, ‘폭력은 어디에서 오는가?(창 4장)’, ‘인류는 재활용 가능한가?(창 6-9장)’, ‘왜 지나치게 완벽한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는가?(지혜서 2:10-3:9)’, ‘하나님은 나의 언어로 말씀하시는가?(행 2장)’, ‘나는 내 몸의 노예인가?(롬 7:14-8:17)’, ‘어떻게 소심함을 이겨낼 수 있는가?(딤후 1:2-2:13)’, ‘역사는 끝이 있는가?(계 21-22장)’ 등의 질문이 바로 그러하다. 비록 이러한 99개의 질문은 매우 짧은 질문과 그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만 나열하고, 때로는 매우 단순한 질문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중요하며,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 뿐 아니라 기존 신앙인들도 삶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설교자들이 설교의 주제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여섯째로 ‘일련의 주제들’(65-133쪽)에서는 34개의 주제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삶의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부터 사회 문제, 생태계 문제, 신학의 문제까지 폭넓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국경 없는 사랑’,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생태계’, ‘믿음과 의심 사이’, ‘형제애와 폭력, 갈등, 경쟁’, ‘전쟁과 평화’, ‘가정, 감옥인가 기회인가’, ‘죽음: 수수께끼, 적, 통과 의례’, ‘고통은 의미가 있는가?’, ‘사랑의 관계와 성’, ‘초자연, 마술, 종교’, ‘여성의 인격’ 등이다. 이러한 주제들을 통해 볼 때, 현재 프랑스 교회는 단지 자신을 위한 계토로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와 우주 차원의 문제에 개입하여 행동하려는 입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참여는 청소년들에게 무거운 부담과 어려운 언어로 다가가지 않고,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주제들이 매우 신선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끌 만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일곱째로 ‘성경에서 피해갈 수 없는 낱말과 나오지 않는 낱말’(134-135

쪽)을 두 쪽에 걸쳐서 짧게 소개하고 있다. ‘성경에서 피해갈 수 없는 낱말’은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낱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위의 두 가지 항목 가운데 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낱말’에 대한 목록이다. 이 목록은 신앙인들이 신앙 전통이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낱말들이지만, 실제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잘못된 지식을 고쳐주고 있다. 예를 들어 서양의 화가들은 요나의 큰 물고기를 고래로 그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요나서에는 ‘고래’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는 것과 르네상스 시대부터 선악과를 사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과’와 선악과는 다르다고 교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 역시 성경을 자세하게 읽지 않았지만 서양 문화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재미있게 소개하여 성경을 더 친밀한 방식으로 알아가게 하고 성경에 흥미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독서 방법 1’은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도움 찾기’(136쪽)로 끝난다. 여기에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참조할 수 있는 성경 구절로 이루어진다. *ZeBible*이 소개하는 대표적인 문제들은 ‘내가 두려울 때’, ‘내가 걱정할 때’,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 ‘내가 실망했을 때’, ‘내가 화났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지쳤을 때’, ‘내가 고독할 때’, ‘내가 소외감을 느낄 때’, ‘내가 시간을 관리하기를 원할 때’ 등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신앙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줄 만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 3. 성경 각 책의 짜임과 본문 해설

지금까지 *ZeBible*의 특징과 짜임새를 살펴보았다면, 이 해설 성경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독자들이 이 성경을 파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경의 모든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이 특별히 읽기 어려워하고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구약의 레위기를 예로 삼아 *ZeBible*이 이 책을 어떻게 개론적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고, 고대의 율법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고 적용하려고 시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3.1. 개론

*ZeBible*은 한 쪽 또는 두 쪽의 짧은 분량을 할애하여 각 책의 개론을 소개

한다. 그러한 개론은 앞의 짜임새(2.2.)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주로 ‘책을 읽는 이유’, ‘주요 인물’, ‘문학 양식’, ‘내용 요약’, ‘구조’, ‘핵심 주제들’, ‘저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레위기의 개론에는 ‘핵심 주제들’과 ‘저자’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아래의 3.1.1.에서 3.1.4.까지는 실제로 ZeBible이 소개하는 개론의 내용(143쪽)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긴 것인데, 독자들이 이 성경의 개론 전개 방식을 이해하는 데 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3.1.1. 책을 읽는 이유

‘레위기는 다른 세상으로 넘어간다! 수많은 규칙과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세계에 스며들어가도록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음식, 농업 또는 사랑의 관계들에 대한 성찰을 통해 모든 인간관계를 검토하게 한다. 레위기는 자신의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땅에 대한 관계에서 어떻게 가장 정의로울 수 있는가?’

### 3.1.2. 양식과 내용

‘레위기는 주님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과 규정의 집합이다. 세부적인 가르침들은 제사와 제물,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들이다. 다른 규칙은 음식, 질병,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성관계, 주기와 절기에 대한 자료들이다.

백성은 주님이 주신 선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함께 잘 살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19:18).’

### 3.1.3. 구조

1-7 제사 규정

8-10 레위인의 성별

11-16 정함과 부정함의 조건

17-27 이스라엘의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

### 3.1.4. 주요 인물

모세: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규정을 전달하는 대리인

아론(대제사장)과 레위인: 제사 책임자

이스라엘 백성: 개인과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

### 3.2. 본문 해설

*ZeBible*의 레위기에는 모두 84개의 본문 해설이 있다. 내용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 어떤 해설은 주로 신학적인 해석에 해당하고 어떤 해설은 보다 윤리적인 해설에 해당하기도 한다. 분량의 측면에서 어떤 해설은 한 구절을 설명하기도 하고(예, 1:1에 대한 해설), 어떤 해설은 한 장 전체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한다(예, 1:1-17에 대한 해설). 이 가운데 특징적인 몇 가지만 선별하고 번역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손해배상(5:14-26; 『개역개정』 5:14-6:7)

다른 사람에 거슬러 벌어진 행위 역시 주님에 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두 가지 보상을 행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행한 피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한 제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ZeBible*은 속건제에 대하여는 단락의 소제목을 ‘배상제’(Le sacrifice de réparation)로 옮기고 있지만, 해설 단락에서는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속건제의 목적을 매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출산휴가(12:1-8)

법은 막 출산한 여자를 위한 ‘부정한’ 기간을 정한다. 사실상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여자는 생명을 낳는 행위에서 비난 받아서는 안 된다! 반대로 출산은 창조의 순간인데, 인간이 역사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결 의식이 끝날 때까지 격리의 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아이와 아이 주변 사람을 위한 통과 의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레위기 12장은 정결법(11-15장) 안에서 특별히 산후 여성의 부정함을 다룬다. 오늘날 독자들은 아이를 낳은 여성이 부정하다는 레위기 12장의 선언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ZeBible*은 이를 일종의 출산휴가로 설명함으로써, 현대의 독자들로 하여금 과거의 사람들이 부정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

적인 의미를 친근한 언어로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통제된 도살(17:3-5)

짐승 도살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도살된 모든 짐승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 짐승을 죽이는 일은, 비록 일상의 음식을 위한 것이더라도 여기에서 강조되는 거룩한 성격을 가진다.

현대 세계에서, 기업적 도살은 위생의 필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짐승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레위기 17장은 제사 또는 음식으로 사용할 짐승 도살의 문제를 다룬다. 짐승을 도살할 때 모든 짐승을 성소 앞에서 죽여야 한다는 레위기의 규정을 현대의 짐승 윤리(animal ethics)의 문제와 연결시켜 설명함으로써 과거와 현대의 간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동성애(20:13)

레위기는 동성애 행위를 사형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으로 단죄한다. 이러한 처벌은 오늘날의 독자에게는 놀라움을 준다. 법은 변화했다. 도덕은 사람의 인격과 사람이 하는 행위를 구별한다. 인간의 여러 과학은 동성애 경향에 대한 질문이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이 규정하는 동성애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ZeBible은 우선적으로 과거의 입장을 설명하고, 다음에 오늘날과 변화된 입장을 설명한다. 비록 이 성경이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의학이나 심리학 등이 동성애의 원인과 동성애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하여 제기하는 다양한 입장으로 말미암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 4. 우리말 해설 성경을 위한 평가

### 4.1. 장점

ZeBible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성경은 성공작이다. 이는 무엇보다 겉모습과 내용, 독자와의 소통 방식에서 예전의 해설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전 성경에 비하여 너무나 파격적인

모습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공격과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은 듯이 보인다.

이 성경은 먼저 이 성경을 읽을 명확한 독자층을 15-25세의 젊은층과 비기독교인들도 포함하는 초신자층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독자층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요구 사항을 여론 조사에 따라 냉철하게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프랑스를 비롯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미래 교회의 생존을 위한 절실함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성경이 독자층을 분명하게 선정하였다면, 이들에게 해설할 집필진을 교회 현장에서 이들과 대화하는 목회자들로 정한 것 역시 성공적으로 보인다. 물론 전통적인 입장에서 *ZeBible*을 바라보면, 그 해설의 수준이나 양에서 실망할 수도 있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성경』에 비하면 그 해설의 깊이가 얕은 것이 사실이고,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에 비교하면 여러 구절을 뭉뚱그려 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신학에 문외한인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접하는 접점과 앞으로 평생 성경을 읽도록 하는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양의 수준 높은 해설도 중요하지만, 해설 성경은 마땅히 어느 정도의 높은 수준과 상세한 설명을 가져야 한다는 선입견을 포기하는 것 역시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이 성경은 제목과 디자인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 성경이 독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말씀에 대하여 감흥과 반응이 없는 시대(마 11:7//눅 7:32)에 이 성경은 청소년들에게 믿음에 대한 작은 불씨를 일으킬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사람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서, 대결에서 대화로 논의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촉매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말 성경에도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개신교 목회자와 가톨릭 신부가 한국 사회와 교회의 문제에 직면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공동의 해설 성경을 집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희망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 4.2. 취약점

*ZeBible*의 가장 크고 핵심적인 취약점은 성경 본문 자체는 1982년에 초판 발행되고 1997년에 수정된 기존의 『상용 불어 성서』를 사용한 점이다.<sup>14)</sup>

14) 이 성경에 대한 간략한 우리말 설명과 의미를 위해서는 다음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라.  
[http://www.bskorea.or.kr/about/worldtrans/prabib/prabib\\_view03.aspx](http://www.bskorea.or.kr/about/worldtrans/prabib/prabib_view03.aspx). 이 성경 이전의 프랑

물론 이 성경이 프랑스어 성경 역사에서 기능적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출판된 첫 프랑스어 성경이기는 하지만, 이미 거의 20년 전에 번역된 성경에 오늘날의 청소년들을 위한 해설을 붙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느냐는 독자들의 비판이 있기도 했다. 또한 1997년에 번역된 성경에 ZeBible이라는 일상어 제목을 붙이는 것도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비판에 대하여 ZeBible의 편집진도 고민한 바 있다. 15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새로운 번역 성경을 출판하는 것보다, 오늘날 젊은 독자들을 위한 해설 성경을 만드는 것에 더 큰 주안점을 둔 것이다.<sup>15)</sup>

또한 비록 작은 결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ZeBible의 각 책에 대한 개론에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책에 따라 위에서 말한 서론의 모든 요소, 곧 ‘책을 읽는 이유’, ‘주요 인물’, ‘문학 양식’, ‘내용 요약’, ‘구조’, ‘핵심 주제들’, ‘저자’를 다 포함하는 책도 있고, 이 가운데 한두 가지 요소가 빠진 책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이 성경의 서문이나 전체 개론에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집필진이 해설 성경을 작성하면서 실수로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아닌가, 또는 고의적으로 특정 부분은 생략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하여, 독자에 대한 깊은 배려는 부족한 것으로 느끼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은 본문 해설의 수준을 매우 전문적인 수준에까지 잡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레위기 20:13의 동성애에 대한 설명에서, 오늘의 과학은 동성애의 원인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식의 설명은 비록 고대 본문과 오늘날의 과학 사이에 있는 간격을 드러내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설은 매우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다. 물론 본문 해설에서 동성애 등의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이 성경의 부록의 용어 해설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어떠한 면에서 오늘날의 윤리 문제와 충돌을 일으키는 지 독자에게 납득시킬 의무가 있다.

## 5. 결론

ZeBible은 현실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청소년과 비기독교인

스 성경 번역 역사를 위해서는 참조, 김성규, “프랑스 성경 번역 역사-1474년~1910년까지-”, 『성경원문연구』 26 (2010), 113-136.

15) B. Sauvaget et S. Richert, “Une bible «jeune»”, 8.



이라고 하는 특정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집필한 해설 성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존의 많은 해설 성경이 주석의 축소판이라는 인상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은 그야말로 독자들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이해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시도한다. 또한 집필자들이 프랑스어 문화권에 있는 교회의 청소년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독백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론 수렴을 통하여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비롯한 최첨단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물론 이 성경이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나치게 전문적인 수준을 스스로 지양함으로써, 때로는 민감한 신학 문제에 대하여 두리뭉실하게 지나치고 넘어가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또한 과연 청소년에게 다가가기 쉬운 개론과 본문 해설이 과연 얼마나 성경 본문 자체에 접근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냉철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거의 20년 이전에 번역된 성경에 해설을 붙였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해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틀을 깨고, 자신의 언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버리면서까지 새로운 해설 성경을 시도한 것은 ‘모험 없이는 승리도 없다’는 서양의 속담을 떠올린다.

#### <주제어>(Keywords)

제 비블, 해설 성경, 우리말 해설 성경, 독자, 종교와 사회 상황.

*ZeBible*, Study Bible, Study Bible in Korean, Reader, Religious and Social Situation.

(투고 일자: 2014년 8월 13일, 심사 일자: 2014년 8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14년 8월 22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성규, “프랑스 성경 번역 역사 - 1474년~1910년까지 -”, 「성경원문연구」 26 (2010), 113-136.
- 김영봉, “우리의 상황에서 나온 해설 성서가 필요하다: 스터디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성경원문연구」 9 (2001), 69-82.
- 김준현, “*New English Translation Bible* (Texas: Biblical Studies Press, 2005)”, 「성경원문연구」 34 (2014), 315-338.
- 민영진,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 「성경원문연구」 9 (2001), 7-40.
- 왕대일,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터디바이블』: 구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9 (2001), 41-55.
- 왕대일, “우리가 만드는 해설 성서 - 무엇을, 왜, 어떻게: 우리말 해설 성서의 작성과 편집을 위한 제안”, 「성경원문연구」 9 (2001), 106-124.
- 유은결, “*BasisBibel: Neues Testament und Psalme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성경원문연구」 34 (2014), 302-314.
- Sauvaget, B., Richert, S., “Une bible «jeune»”, *Réforme* 3417 (2011), 8-10.

<http://www.basisbibel.com>

[http://www.bskorea.or.kr/about/worldtrans/prabib/prabib\\_view03.aspx](http://www.bskorea.or.kr/about/worldtrans/prabib/prabib_view03.aspx)

<http://www.editionsbiblio.fr>

<http://www.la-bible.net/>

[www.netbible.com](http://www.netbible.com)

<http://www.ZeBible.com/>

<Abstract>

***ZeBible***

**(Villiers-le-Bel : Société Biblique Française-Bibli'O, 2011)**

Sun-Jong Kim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ZeBible* is a French study Bible that the French Bible Society published in 2011 after 7 years of work with the investment of 620,000 Euros. The most salient feature of this Bible is that the French pastors have participated as authors and editors in this project for adolescents of 15-25 years old and non-Christians. *ZeBible* is tailored completely for their use from its name to its design and communication with these readers. This Bible approaches readers with contents in interesting language so that they can be understood easily. It is thus natural that *ZeBible* is much more concerned with political, economical, and ethical issues than theological comments in comparison with other study Bibles. Another strong point is that this study Bible is not a biblical commentary in its miniature form. *ZeBible* is a symbol of ecumenical work in French churches. The French Bible Society stands on the biblical thought that the Bible is not a place of competition and fight, but a place of reconcili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different religious orders and different religions.

Korean Churches need a Korean study Bible written by pastors for particular groups and multi-cultural members in the social and pastoral situations of Korea. To achieve this aim, *ZeBible* may function as a good model for a Korean study Bible.